

『中国分类主题词表』와 『国立国会図書館件名標目表』에 나타난 한국 관련 주제명표목에 대한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the CCT and NDLSH

문 지 현(Ji-Hyun Moon)**

< 목 차 >

I. 서론	III. NDLSH와 CCT의 한국 관련 주제명의 분석
1. 연구목적 및 방법	1. NDLSH의 한국 관련 주제명의 특성
2. 선행연구	2. CCT의 한국 관련 주제명의 특성
II. NDLSH와 CCT의 발전과정 및 특성	3. NDLSH와 CCT의 한국 관련 주제명의 비교 분석
1. NDLSH의 발전과정 및 특성	IV. 결론
2. CCT의 발전과정 및 특성	

초 록

이 연구는 일본의 NDLSH 2008년판과 중국의 CCT 제2판에 수록된 한국 관련 주제명의 수와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NDLSH와 CCT에 수록된 주제명은 258개와 137개로, NDLSH에 수록된 주제명이 2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참조어수를 제외한 순수 주제명은 CCT가 더 많고 인명, 단체명, 세목 결합 주제명을 포함시킨다면 NDLSH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한편 CCT는 사회주의적, 친북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정치, 외교, 군사 분야의 주제명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북한의 시각을 담은 주제명도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국가명칭으로 NDLSH는 최근에서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하였으며, CCT는 ‘한국’ 보다는 ‘조선’이라는 명칭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조선’과 ‘한국’의 구분도 모호하다. 국가간 논쟁이 되고 있는 ‘독도’, ‘동해’,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발 당사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발해는 양 표목표 모두 중국 역사의 일부로 설정하고 있어 한국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배정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주제명표목표, 일본국립국회도서관주제명표목표, 중국분류주제사표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number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related subjects included in the 2008 Japanese edition of the National Diet Library Subject Headings (NDLSH) and the 2nd edition of the Chinese Classified Thesaurus(CCT).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258 subjects, approximately twice as many as 137 subjects in CCT, were found in NDLSH. There are more pure subjects that exclude the references in CCT than in NDLSH. On the other hand, much more subjects are found in NDLSH in the event that personal names, corporate headings, and subjects combined with detailed headings are included. Meanwhile, more subjects are relatively engaged in the fields of politics, diplomacy, and military in CCT because CCT is characterized by socialism and by being a pro-North Korea. Moreover, the considerable numbers of subjects reflecting North Korea's viewpoint are included in CCT. NDLSH changed only recently the name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in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CCT more frequently uses "Joseon" than "Korea", an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names is unclear. CCT thoroughly supports the stance of the developed country, directly involved in the disputable subjects between two countries such as "Dokdo", "the East Sea", "Dumangang", and "Baekdusan". Both heading lists consider "Balhae" as part of Chinese history in CCT, which has ignored the position of Korea.

Keywords: Subjects headings, NDLSH, CCT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H00018).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rlacodnjs@hanmail.net)

• 접수일: 2012년 8월 24일 •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15일 • 최종심사일: 2012년 9월 21일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문헌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통일하는 데 사용되는 주제명표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특성과 사상에 기반하여 개발·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회도서관에서 개발한 LCSH(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는 미국내의 도서관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도서관에서 널리 사용되는 명실 공히 국제적인 표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에 이재철 교수가 『주제명표목표』란 이름으로 최초로 편찬한 이후, 1994년 후조합 정보검색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제명 검색요어집』이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2002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된 『주제명표목표』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과 일본도 독자적인 주제명표목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먼저 일본에서는 일본도서관협회가 유지 관리하는 『基本件名標目表』(Basic Subject Headings : 이하 BSH로 칭함)와 국립국회도서관에서 개발한 『國立國會圖書館件名標目表』(National Diet Library Subject Headings : 이하 NDLSH로 칭함)의 2종류가 사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북경도서관을 주축으로 도서관계와 정보계가 협력하여 개발한 『中国分类主题词表』(Chinese Classified Thesaurus : 이하 CCT로 칭함)가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주제명표목인 NDLSH 2008년판과 CCT 제2판에 수록된 한국 관련 주제명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고대부터 동북아시아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온 한·중·일은 유교문화권, 한자문화권으로 불리워질 만큼 종교, 역사,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일본이나 중국의 주제명표목표에 수록된 한국 관련 주제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영토 및 역사논쟁이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보이는데, 예를 들어 ‘독도’나 ‘동해’는 한일관계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며, ‘발해’, ‘두만강’, ‘압록강’ 등은 한중관계에서 증시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들이 분쟁당사국과 제3국의 주제명표목표에서 어떻게 표기되고 있는지, 한국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표기는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NDLSH 2008년판 및 CCT 제2판과 참고 문헌을 분석하여 각각의 발전과정과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NDLSH와 CCT에 수록된 한국 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여 주제명의 수와 그 특성을 분석한다. 일차적으로 NDLSH 2008년판(PDF 파일 형식의 전자판)과 CCT 제2판(인쇄판)을 전면 조사하여 추출하였으며, 웹기반 검색시스템인 Web NDL Authorities와 CCT Web판에서 다양한 용어들로 검

색·보완함으로써 주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참고로 검색어로 활용된 용어들은 국가명 ‘朝鮮’, ‘韓國’, ‘Korea’ 등을 비롯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김치’, ‘태권도’, ‘동학’ 등 한국적 특색을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셋째, 위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NDLSH와 CCT에 수록된 한국 관련 주제명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되, 전체 주제명 수와 범위, 주제별 현황, 국가명칭, 시대구분,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명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참고로 NDLSH와 CCT에서 추출한 주제명은 원래의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되, 본문 설명에서는 필요에 따라 한국식 표현으로 변환하거나 우리말 번역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2. 선행연구

일반적인 주제명표목표나 주제명표목의 구조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고 한국 관련 주제명에 대한 연구와 NDLSH 및 CCT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 관련 주제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LCSH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LCSH 12판의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 주제명을 추출한 Kim¹⁾의 연구를 필두로 하여, 18판을 대상으로 정치와 정부, 언어, 예술, 문학, 역사 부문의 한국 관련 주제명을 분석한 김영귀²⁾의 연구와 20판에 나타난 한국 및 일본 관련 주제표목의 개략적인 주제 분포와 논쟁이 되는 용어들을 비교 분석한 윤정옥³⁾의 연구가 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서 김정현은 LCSH 초판부터 최신판인 제31판까지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및 주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⁴⁾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에서는 주요 6개국의 한국 관련 주제명 자료집을 편찬하였다.⁵⁾

다음으로 NDLSH에 관한 연구로서村上(2009)은 일본의 대표적인 주제명표목표인 BSH와 NDLSH의 주제별 유사도를 계량학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⁶⁾永森 등은 NDLSH의 텍스트 데이터를 SKOS(Simple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 형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그래픽 브라우저를 작성하였다.⁷⁾ 국내에서는 문지현 등이 NDLSH 2008년판에 수록된 한국과 중국

1) Kim, Joy,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 Related to Korea and East Asia in Genera* ([Unknown]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1980).

2) 김영귀, “LC Subject Headings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의 선정 및 표기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대학편), 제44집(1997), pp.237-272.

3) 윤정옥,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의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표목의 비교 연구,” 도서관, 제56권, 제1호(2001), pp.30-55.

4) 김정현,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10), pp.147-169.

5)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주요 6개국 국립도서관 한국관련 주제어 자료집』,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0.

6)村上幸二, “BSH(基本件名標目表)とNDLSH(国立国会図書館件名標目表)の計量的比較分析,” 紀要 40(2009), pp.135-147.

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여 표목의 수와 주제별 특성을 분석하였다.⁸⁾

한편, CCT에 대한 연구로서 최석두는 CCT 제1판(1994)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형식과 구조를 분석하였으며,⁹⁾ 문지현 등은 CCT 제2판에 수록된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여 주제명의 수와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¹⁰⁾

이와 같이 한국 관련 주제명 연구는 대부분 LCSH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NDLSH내의 한·중 관련 주제명과 CCT내의 한·일 관련 주제명을 비교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두 국가 이상의 주제명표목표를 대상으로 한국 관련 주제명의 현황과 특징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이 연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II. NDLSH와 CCT의 발전과정 및 특성

1. NDLSH의 발전과정 및 특성

가. NDLSH의 발전과정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는 2개의 주제명표목표 중 일본도서관협회가 유지 관리하는 BSH는 TRC MARC과 같은 민간 MARC에 채용되어 여러 도서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신판은 1999년에 간행된 제4판으로 표목수 7,847개를 포함하여 총 11,192개의 주제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체로 일반적인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 : 이하 NDL로 칭함)에 의해 개발·사용되고 있는 NDLSH는 『日本全國書誌』에 채용되어 JAPAN/MARC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주로 학술적인 용어를 수록하고 있다.¹¹⁾ 1964년 초판이 발간된 이후, 1991년 제5판이 발행되었고 2004년도판은 시소러스 방식의 표시기호 도입, 전자파일 형식으로만 간행, 그리고 연도를 사용한 개정판의 명명 등 큰 변화가 일어났다. 최신판인 2008년도판은 NDL 홈페이지에서 NDC(신정9판)분류기호순 배열표와 오십음순배열표의 2종의 PDF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고 희망자에게는 텍스트 데이터로도 제공된다. 오십음순배열표내에 수록된 주제명수는 표목 17,953건에 참조형까지 포함하여 총 47,816건이

7) 永森 光晴, 杉本 重雄, “國會圖書館件名標目表(NDLSH)의SKOS化とそのグラフィカルブラウザの作成,” 디지털도서관, Vol. 31(2006), pp.13-21.
8) 문지현, 김정현, “『國立國會圖書館件名標目表』의 한·중 관련 주제명표목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11), pp.247-267.
9) 최석두, “『中國分類主題詞表』의 형식과 구조,” 國會圖書館報, Vol.39, No.6(2002), pp.29-48.
10) 문지현, 김정현, “『中國分類主題詞表』의 한·일 관련 주제명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pp.331-350.
11) 村上幸二, BSH(基本件名標目表)とNDLSH(國立國會圖書館件名標目表)의計量的比較分析, 紀要 40(2009), p.135.

지만, 2009년 4월 이후부터 2011년 11월까지 신설·정정·삭제된 표목을 추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표목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10년 6월에 공개되었던 Web NDLSH는 『國立國會図書館典拠データ検索・提供サービス』(이하 Web NDL Authorities로 칭함)로 변경되었는데, 2011년 7월 개발 버전을 공개한 이후 2012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Web NDL Authorities는 일반 주제명만을 수록대상으로 삼았던 Web NDLSH와는 달리 인명, 단체명, 지역명, 국가명, 대양명 등 주제명의 수록범위가 대폭 확장되었으며, 검색결과도 <그림 1>과 같이 주제명의 유형별로 제시되어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1> Web NDL Authorities의 검색결과 화면

나. NDLSH의 특성

NDLSH내의 주제명표목은 주표목, 세목, 참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일반주제명 형식으로 구성된 주표목은 개인명이나 단체명과 같은 고유명표목을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역명, 국가명, 대양명, 사건명, 주요 국제기관명, 주요 조약명 등은 인정하고 있다. 주표목의 구문은 단어어, 복합어, 병렬어, 구 형식, 괄호 사용형식 등 다양하며, 도치표목의 구문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세목은 주표목에 결합해 사용되는 주제명으로, 주표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세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SA참조주기'와 'USE참조주기'를 사용하여 세목사용을 지시한다. 결합되는 세목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모두 6종류로, 이중 일본 및 주요 20개국에 독자적으로 결합되는 시대세목과 특수세목을 제외하고는 세목이 부착된 주제명표목은 주제명표목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3호)

- ① 주제세목 : 주표목이 나타내는 내용을 상세화 시킨다. (ex: 의약품--가격)
- ② 형식세목 : 자료의 출판 형식이나 서술 형식 등을 나타낸다. (ex: 기계--카탈로그)
- ③ 시대세목 : 표목의 시대를 특정한다. (ex: 영화--역사--20세기)
- ④ 지역세목 : 주표목에 지명을 결합시켜 지역을 특정한다. (ex: 도시재개발--일본)
- ⑤ 지명결합세목 : 지명표목에 세목이 결합된다. (ex: 오스트레일리아--정치)
- ⑥ 특수세목 : 특수한 주표목에서만 사용된다. (ex: 세계전쟁(1939~1945)--대독협력)

한편 NDLSH에서는 참조와 참조주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참조에는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가 있다. 보라참조는 USE와 UF로 표시되며 동일 개념의 이형 표기형, 개념상의 차이가 적어 구분이 곤란한 용어, 두문자어 등의 동등관계를 표시한다. BT, NT, RT 등의 표시기호를 사용하는 도보라 참조는 표목들 간의 관계성을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참조주기는 주표목으로도 세목으로도 사용가능한 주제명의 세목 사용을 지시하는 SA참조주기와 주표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제명을 세목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USE참조주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은어

SA: 주제세목 「은어」 도보라(언어를 나타내는 주제명세목으로 사용한다. 예: 영어--은어)

《형》 [모양, 형상]

USE: 주제세목 「형」을 보라(고전 예능, 무도를 나타내는 주제명세목으로 사용한다. 예: 가부키--형)

2. CCT의 발전과정 및 특성

가. CCT의 발전과정

중국 최초의 주제명표목표는 1979년 8권 10분책의 형식으로 출판된 「漢語主題詞表(Chinese Subject Thesaurus)」로, 당시까지의 국내외 주제명표목표 편찬기술과 경험을 집약하여 전체 학문분야와 전문영역을 포괄함으로써 이후 간행된 100여종의 각종 주제명표목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수록된 주제명은 정식 주제사(표목) 91,158개와 비정식 주제사(참조어) 17,410개를 포함하여 총 108,568개이다.

한편, 중국내에서는 분류 작업과 주제명 작업의 통합화를 위해 도서관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꾸준한 노력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 영향력이 가장 큰 성과가 CCT이다. 따라서 CCT의 구조는 중국의 대표적인 분류법인 「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과 전술한 「漢語主題詞表」가 통합된 형태이며, 초판은 1986년에 시작하여 8년 후인 1994년에 완성되었다. 수록된 항목은 유목(類目) 5만여 개, 주제어 및 주제어군 21만여 개에 이른다. 이후 온라인 환경으로의 급속한 발전과 기계가독형 주제명

표목표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그리고 모본이 되는 『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 개정판(제4판)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 등 여러 개정의 요건들을 반영하여 2000년부터 초판에 대한 개정작업이 시작되었고, 2005년 CCT 제2판이 인쇄판과 전자판의 형식으로 동시에 간행되었다. 또한 유료이용자에게 한정되기는 하지만 중국국가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 CCT Web판의 검색도 가능하다. <그림 2>는 CCT Web판에서 '朝鮮人'으로 검색한 결과로, 화면 왼쪽에 해당 주제명이 포함된 분류체계상의 위치를 보여주고 화면 오른쪽에 주제명을 표시해주고 있다.



<그림 2> CCT Web판에서 검색결과 화면

나. CCT의 특성

CCT 제2판은 제1권 『분류기호-주제어 대응표』(2책)와 제2권 『주제어-분류기호 대응표』(4책)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권 『분류기호-주제어 대응표』는 『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제4판)(『中國圖書資料分類法』 포함)을 기본으로 『漢語主題詞表』의 주제어 및 새로 추가한 주제어를 해당 유목 아래 대응시킨 것이다. 이 부분은 아래 예시와 같이 본 페이지를 좌우로 반분하여 왼쪽 칼럼에는 분류기호, 유명(類名), 유목주석(類目註釋) 및 보조표를 기술하고, 오른쪽 칼럼에는 대응 주제어, 주제어군(전조합형식의 주제어를 일컬음), 주석을 기술한다. 고딕체로 기술된 제1단락은 유명과 대응되는 주제어 및 주제어군이고, 제2단락은 기타 관련되었거나 유목 주석에 대응되는 주제어 및 주제어군을 한어병음순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

B503	中世紀哲學 기독교철학을 포함 B97을 참조	中世紀哲學\歐洲 基督教\宗教; 人类中心说; 亚历山大利亚学派
------	-------------------------------	-------------------------------------

제2권 『주제어-분류기호 대응표』는 『漢語主題詞表』를 기본으로 하여 주제어군을 추가한 후, 『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의 분류기호를 해당 주제어나 주제어군에 대응시킨 것이다. 주제명을 구성하는 요소는 주제어와 주제어군이 각각 다루게 나타나며, 인쇄판과 전자판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전자판에서 주제어는 한어병음·주제어·주석·영문번역명·분류기호 및 각종 참조항목으로 구성되며, 주제어군은 영문명과 참조항목은 표시되지 않는다. 각 참조항목의 의미를 살펴보면, D(代)는 비정식 주제사(참조어)를, Y(用)는 정식 주제사(표목)를, Z(族)는 계층관계를 갖는 하나의 단어족 중 개념의 외연이 가장 큰 최상위 주제사를, S는 최근접 상위 주제사를, 그리고 C(參)는 연관관계에 있는 주제사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전자판의 주제어가 여러 요소들로 구성된 점에 비하여 인쇄판은 인명, 단체명, 표제 등의 주제어와 주제어군은 수록되지 있지 않으며, 단일주제어의 경우에도 한어병음, 영문번역명, 참조표시 S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주제어 (전자판)	주제어 (인쇄판)	주제어군 (전자판)	주제어군 (인쇄판)
er tong shi ge 儿童诗歌 Children's poetry I058 D 儿童诗 Z 诗歌 Z 文学 S 儿童文学 S 诗歌 C 儿歌	儿童诗歌 I058 D 儿童诗 Z 诗歌 Z 文学 C 儿歌	shu fa zhong guo 书法\中国 J292	수록하지 않음

III. NDLSH와 CCT의 한국 관련 주제명의 분석

NDLSH 2008년판과 CCT 제2판에 수록된 한국 관련 주제명을 KDC에 따라 주제별로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NDLSH의 경우 Web NDL Authorities내에는 다양한 세목을 결합한 주제명이나 인명, 단체명, 지역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지역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에서 제외시켰는데, 단체명의 경우 '現代朝鮮研究會'와 같이 한국 관련 일본 단체가 대부분이고, 인명의 경우 '朝鮮'이나 '大韓民國'과 같은 국가명으로는 검색되지 않고 실제 인명만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누락의 여지가 많아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PDF 파일 형식의 주제명표목표에 포함된 '朝鮮--歷史--高麗時代'와 같은 시대세목과 지역명은 포함시켰다. 한편 CCT Web판에서는 국가명만으로도 다양한 인명이 검색되고 있으나, NDLSH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계에서 제외시켰다. 다만 철학, 언어, 문학 분야에 수록된 표제는 포함시켰다.

〈표 1〉 NDLSH와 CCT의 한국 관련 주제명의 주제별 현황

주제별 구분 (KDC)	NDLSH				CCT				
	표목	참조	소계(%)		표목	참조	소계(%)		
철학	2	4	6	6 (2.3%)	9		9	9 (6.6%)	
종교	3	6	9	9 (3.5%)				0 (0%)	
사회 과학	정치	1	2	3	47 (18.2%)	8		8	43 (31.4%)
	외교	5	6	11		16	2	18	
	군사					14	3	17	
	경제	16	5	21					
	사회	2	3	5					
	교육	3	2	5					
자연 과학	민속	1	1	2					
	식물	2	7	9	16 (6.2%)	5	4	9 (6.6%)	
기술 과학	동물	1	6	7					
	농업	2	1	3	13 (5.0%)				1 (0.7%)
	제조업	1	1	2		1		1	
가정학	2	6	8						
예술	2	4	6	6 (2.3%)	1		1	1 (0.7%)	
언어	7	11	18	18 (7.0%)	5		5	5 (3.6%)	
문학	6	7	13	13 (5.0%)	2		2	2 (1.5%)	
역사	역사	33	62	95	130 (50.4%)	43	43	67 (48.9%)	
	전기	1	2	3					
	지리	24	8	32					
합계	114	144	258(100%)		126	11	137(100%)		

1. NDLSH의 한국 관련 주제명의 특성

NDLSH에서 한국 관련 주제명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목 114개, 참조어 144개를 포함하여 전체 258개이다. 주제별 현황을 살펴보면 역사가 50.4%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18.2%의 사회과학 분야이다.

① 철학, 종교

철학 관련 주제명은 상하관계로 연결된 ‘朝鮮思想’과 ‘儒學’으로, LCSH상의 해당 표목인 ‘Philosophy, Korean’과 ‘Confucianism’을 참조어로 표시하고 있다. 종교 분야는 ‘天道教’, ‘東學’, ‘シャ머니즘(샤머니즘)’ 등 3개의 주제명이 상하관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시종교의 일종인 ‘シャ머니즘(샤머니즘)’은 지리구분을 통해 주제 한정 가능성이 있다.

② 사회과학

먼저 정치·외교 관련 주제명으로는 ‘大韓民國(臨時政府 1919-1945)’를 포함하여 6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朝鮮問題’는 LCSH 상의 표목인 ‘Korean reunification question(1945-)’을 참조어로 두고 있으며 남북한의 통일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에 사용하도록 주기하고 있다. 또한 주제명 ‘竹島問題(竹島の 일본식 읽기는 다케시마)’는 독도를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 있으며, 2011년에는 중·일간의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센카쿠 제도과 관련하여 ‘尖閣諸島問題’(센카쿠는 일본식 표현, 중국명은 釣魚島-다오위다오)를 추가하였다.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은 주제명을 수록하고 있는 경제 분야는 이민이나 해외활동과 관련된 주제명이 전부를 차지한다. 즉,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은 ‘朝鮮人(外國在留)’을 상위어로 미국,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러시아, 시베리아, 만주, 하와이 주, 사할린 등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하위어로 연결하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주요 외국인인 네덜란드인, 일본인, 중국인(화교) 등이 ‘外國人(朝鮮在留)’와 계층관계를 이루고 있다.

사회 분야의 주제명 중 ‘朝鮮人強制連行’은 일본내 지역명으로 지리구분할 수 있으며 Web NDL Authorities에는 교토(京都)를 비롯한 7개의 지역명을 세목으로 결합하고 있다. 교육 관련 주제명은 3개이며, 여기서 ‘書院’은 일반적인 서재(주제명 ‘書齋’)나 일본 전통 건축양식인 ‘書院造(쇼인즈쿠리)’와는 달리, 중국과 조선의 근세 교육연구기관에만 사용하도록 주기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의 마지막 주제명은 한국의 전통 행상인 ‘負祿商’으로, 주제명은 지리세목이 부가된 ‘行商--朝鮮’이고 ‘負祿商’은 참조어에 해당된다.

정치·외교	大韓民國(臨時政府 1919-1945), 朝鮮問題, 民族問題, 金大中拉致事件(1973), 竹島問題, 日韓基本條約
경제	朝鮮人(外國在留), 朝鮮人(アメリカ合衆國在留), 朝鮮人(日本在留), 朝鮮人(中國在留), 朝鮮人(ウズベキスタン在留), 朝鮮人(カザフスタン在留), 朝鮮人(インドネシア在留), 朝鮮人(ロシア在留), 朝鮮人(シベリア在留), 朝鮮人(滿州在留), 朝鮮人(樺太在留), 朝鮮人(ハワイ州在留), 外國人(朝鮮在留), オランダ人(朝鮮在留), 日本人(朝鮮在留), 華僑(朝鮮在留)
사회	朝鮮人強制連行, 慰安婦
교육	書院, 朝鮮語教育, 朝鮮學校
민속	行商--朝鮮(참조어 負祿商)

③ 자연과학, 기술과학

자연과학 및 기술과학과 관련된 주제명은 인삼, 흰독말풀(조선나팔꽃), 까치, 둔전, 둔전병, 소주, 김치, 조선요리 등 8개로, 해당표목과 참조어는 아래와 같다. 이 중 ‘屯田兵’을 제외하고 많게는 6개까지 참조어를 설정하고 있으며, 흰독말풀과 까치는 그 명칭에 ‘朝鮮’ 과 ‘高麗’ 라는 국명이 붙어 있어 한국 관련 주제명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표 요리인 김치는 ‘朝鮮料理’와 계층관계로

설정되어 있지만, 국제적 정식명칭인 'Kimchi'가 아닌 일본식 표현의 'キムチ(기무치)'를 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군이나 관청의 운영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설치한 '屯田'과 관련어인 '屯田兵'은 한·중·일 삼국과 모두 관련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설명이나 사용상의 주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목	참조어
ニンジン(藥用)	高麗人參; 朝鮮人參; 藥用人參; 御種人參; Ginseng
チョウセンアサガオ(흰독말풀)	朝鮮朝顏; 曼陀羅華
カササギ(까치)	鵲; かち鳥; 朝鮮鳥; 高麗鳥; 烏鵲; Magpies
屯田	Agricultural colonies
屯田兵	
燒酎	Shochu
キムチ	沈菜; Kimchi
朝鮮料理	韓國料理; 料理(朝鮮); 料理(韓國); Cooking, Korean

④ 예술, 언어, 문학

한국과 관련된 예술, 언어, 문학 주제명은 표목 15개, 참조어 22개를 포함하여 전체 37개이다. 이 중, '行書'는 LCSH 상의 표목인 'Chinese language--Cursive writing', 'Japanese language--Cursive writing', 'Korean language--Cursive writing'을 참조어로 설정하여 한·중·일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언어와 문학 분야내의 주제명들은 계층적 특성을 보여 주는데, '朝鮮語'와 용도별 언어 4개(기술과학,接客, 법률, 의학)가 상하위어로 연결되고 있고 '朝鮮文學'도 문학의 종류에 따른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의 주제명과 상하위어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고유 문자인 한글은 일본 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ハングル'을 표목으로 채택하고 여러 개의 참조어를 설정하고 있으나 공식 영문 명칭인 'Hangul'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용도별 언어인 '朝鮮語(接客用)'는 가장 최근에 생성된 주제명 중 하나이다.

예술	行書, テコンドー(태권도)
언어	ハングル(한글), 吏讀, 朝鮮語, 朝鮮語(科學技術用), 朝鮮語(接客用), 朝鮮語(法律用), 朝鮮語(醫學用),
문학	朝鮮文學, 朝鮮詩, 朝鮮小説, 朝鮮戲曲, 朝鮮隨筆, 鄉歌

⑤ 역사

역사 분야의 주제명은 한국역사구분과 역사적인 사건명 그리고 한국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용어들로 대별되는데, 시대세목이 첨가된 한국역사구분은 중국의 역사구분과 비교 분석하는 장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주제명은 13개인데, 대부분 일

본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용어들이고 그 명칭 또한 일본에서 사용하거나 인정하는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다. 즉, 백제·왜연합군과 나·당연합군 사이에서 벌어진 백강전투를 ‘白村江の戰(663)’로, 임진왜란·정유재란을 ‘文祿·慶長の役(1592-1593, 1597-1598)’으로, 경술국치를 ‘日韓併合’으로 표기하면서 한국식 표현은 참조어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한편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을 일컫는 ‘伊藤博文暗殺事件(1909)’과 1945년 한국인 피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함이 폭발한 사건(우키시마 마루호 침몰 사건)을 나타내는 ‘浮島丸事件(1945)’은 모두 2011년 4월에 추가된 표목들이다. 참고로 ‘浮島丸事件(1945)’의 경우 NDC내에서는 557(항해, 항해학)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일 양국 간의 역사적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무방하다 판단되어 역사 분야로 추출하였다.

한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어 6개 중 ‘兩班’과 ‘花郎團’은 LCSH상의 해당 표목인 ‘Yangban’과 ‘Hwarangdo’를 참조어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土城遺跡’은 일제 강점기 시기에 발굴이 시작된 평안도 옛 낙랑군의 소재지로 추정되는 낙랑토성(樂浪土城)을 의미한다. 역사관련 나머지 주제명은 전기 분야의 ‘朝鮮人’과 지리 분야의 국가명 및 지역명이다. 여기에는 한·일, 한·중 간의 논쟁이 되고 있는 지명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도명과 도시명이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국가명 ‘朝鮮’, ‘大韓民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 대한 분석은 후술하도록 한다.

역사(사건)	白村江の戰(663), 征韓論, 倭城, 文祿·慶長の役(1592-1593, 1597-1598), 京城事變(1882, 1884), 東學堂の亂(1894), 伊藤博文暗殺事件(1909), 日韓併合(1910), 三·一獨立運動(1919), 朝鮮人虐殺事件(1923), 浮島丸事件(1945), 濟州島四·三蜂起(1948), 朝鮮戰爭(1950-1953)
역사(개념어)	朝鮮研究, 花郎團, 兩班, 土城遺跡, 朝鮮通信使, 創氏改名
전기·지리	朝鮮人, 朝鮮, 大韓民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日本海, 竹島, 白頭山, 延辺, 京畿道, 慶尙南道, 慶尙北道, 全羅南道, 全羅北道, 慶尙道(朝鮮), 江原道, 濟州島, 釜山, 仁川, 光州, 大邱府, 平壤, 新義州, 元山, 開城

2. CCT의 한국 관련 주제명의 특성

CCT에서 한국 관련 주제명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목 126개, 참조어 11개를 포함하여 전체 137개이다. 주제별 현황을 살펴보면 역사와 사회과학 분야가 각각 48.9%와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분야의 주제명을 합치면 80%에 이른다. 한편 종교에 해당되는 주제명은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기술과학, 예술, 문학 분야도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

① 철학, 종교

철학 분야의 주제명은 총 9개로, ‘實學(실학)’을 제외한 모든 주제명은 ‘사상가’, ‘철학이론’, ‘철학자’ 등 철학과 관련된 일반 주제어에 국가명 ‘朝鮮’을 조합한 주제어군이다. 한편 집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CCT Web판에는 최한기, 이수광, 이황 등 조선시대 철학자가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퇴계전서》’는 ‘조선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이황의 저서’라는 설명과 함께 ‘이황’과 상관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철학	思想家\朝鮮, 思想史\朝鮮, 哲学\朝鮮, 哲学家\朝鮮, 哲学理论\朝鮮, 哲学史\朝鮮, 哲学思想\朝鮮, 实学, 《退溪全书》
----	---

② 사회과학

사회과학 분야의 한국 관련 주제명은 정치, 외교, 군사 분야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먼저 8개가 수록된 정치 분야의 주제명 중 ‘조선노동당’을 포함한 직업동맹, 청년동맹, 부녀자동맹 등 4개는 북한 공산당 단체들이고, 중국내 정치사건으로 수록된 ‘항미원조운동’은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식 표현으로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의 전쟁을 돕는다는 뜻이다.

정치	朝鮮劳动党, 朝鮮职业总同盟, 朝鮮社会主义劳动青年同盟, 朝鮮民主妇女同盟, 两班(朝鮮), 七·四南北联合声明(朝鮮) (1972), 金大中事件, 抗美援朝运动
외교	汉城条约(1885), 仁川条约, 俄朝条约(1884), 联合国韩国统一复兴委员会, 朝鮮中立国监察委员会(1953-), 朝鮮停战谈判, 朝鮮停战协定(1953), 日内瓦会议(1954), 朝鮮自主和平统一三原则(1972), 朝鮮问题, 日韩基本关系条约(1965), 美韩共同防衛御条约(1953), 中朝关系, 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1961), 朝苏友好合作互助条约(1961), 朝日关系,
군사	朝鮮军事停战委员会(1953-), 抗美援朝战争, 抗美援朝战争战役战斗, 抗美援朝五次战役, 抗美援朝第一次战役(1950), 抗美援朝第二次战役(1950), 抗美援朝第三次战役(1950), 抗美援朝第四次战役(1951), 抗美援朝第五次战役(1951), 上甘岭战役(1952), 美国侵朝战争, 美军朝鮮肅川順川空降作战(1950), 美军朝鮮汶山空降作战(1951), 美军仁川登陆

외교 분야는 16개의 주제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에 체결된 조약들, 한국전쟁과 관련된 국제적 회의 및 협정, 남북 문제,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과 남북한의 관계를 보여주는 주제명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조선시대 조약에는 일본과의 ‘한성조약’ 및 ‘인천조약’, 러시아와의 ‘조러통상조약’이 해당되며, 한국전쟁 주제명으로는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한국 휴전중립국감시위원회’, ‘관문점 회담’과 ‘정전협정’, ‘체네바회의’ 등이 북한이나 중국식 표현으로 설정되어 있다. 남북한이 관계된 주제명은 우리에게 7.4남북공동성명으로 통용되는 ‘朝鮮自主和平統一三原則(1972)’과 ‘조선문제’이다. 대외관계 주제명으로 남한(한국)은 ‘한일관계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2개가, 북한은 중국 및 소련과 맺은 조약을 포함하여 4개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14개의 주제명이 수록된 군사 분야는 모두 한국전쟁과 관련된 주제명이다. 하지만, ‘군사정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중국과 미국 관련 전역 및 전투가 대다수이다. 즉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개입을 일컫는 ‘항미원조전쟁’과 ‘미국침조전쟁’을 필두로 ‘상감령 전투’나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개별

전투명과 작전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전쟁 당사국의 주된 전투명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③ 자연과학, 기술과학

자연과학 및 기술과학과 관련된 주제명은 총 6개로, 조선계(영경귀식물), 장백낙엽송, 조선낙엽송, 조선송, 물황철나무, 장고 등이다. 이 중 자연과학으로 집계한 주제명들은 CCT내에서 식물학, 원예, 임업 등 다양한 주제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아 식물학으로 집계하였다. 또한 NDLSH에서와 동일하게 주제명이나 참조어에 '朝鮮'이나 '長白'과 같이 국가 및 지역명이 붙어 있어 한국 관련 주제명으로 추출하였다. 한편 공업기술에 포함된 '장고'는 주석을 통해 조선과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악기임을 타나내고 있다.

자연과학	朝鮮薊(참조어 洋薊), 長白落叶松(참조어 朝鮮松), 黃花松(참조어 朝鮮落叶松), 紅松(참조어 朝鮮松), 香枒
기술과학	長鼓

④ 예술, 언어, 문학

예술, 언어, 문학과 관련된 주제명은 전체 8개로, 문학 분야는 개념어 없이 표제만이 수록되어 있다. 예술 분야의 '태권도'는 국가에 대한 설명 없이 'Taekwondo'를 영문명으로 두고 있다. 언어 분야에 수록된 '조선어(중국소수민족언어)'는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중 하나인데, CCT 내에는 60개 이상의 언어들이 주제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로 사용된 '노걸대'와 '박통사'는 상관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문학에는 임진록의 한문 번역판인 '항왜연의'와 고대소설 '춘향전'을 수록하고 있다.

예술	跆拳道
언어	朝鮮語(中国少数民族语言), 朝鮮語, 諺文, 《老乞大》, 《朴通事》
문학	《春香傳》, 《抗倭演義》

⑤ 역사

역사 분야 중 시대구분과 관련된 주제명 및 왕조명에 대해서는 후술하고, 역사적 사건명이나 한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역사적 사건을 다룬 주제명은 모두 6개이며, 이 중 중국 명나라 역사와 한국의 중세기사에 각각 수록되어 있는 '항왜원조전쟁'과 '임진위국전쟁(1592-1598)'은 둘 다 임진왜란에 대한 중국식 표현이다. 또한 '조선전쟁'의 경우 '侵朝戰爭(1950-1953)'이나 북한에서 사용하는 '朝鮮祖國解放戰爭(1950-1953)'만을 참조어로 설정하고 있을 뿐, '한국전쟁'이나 '6.25전쟁'과 같은 한국식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한국적 특성을 나타내는

주제명 중 ‘간도문제’는 20세기 조선 정부와 청나라간의 간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의미한다.

지리 분야의 주제명은 국가명과 지역명 그리고 일부 바다 및 산과 같은 고유 지리명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CCT 보조표 중 세계지리표(二)에 수록된 국가명은 ‘朝鮮’, ‘韓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등 세 개이고, 남북한의 대표적인 도시명을 수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옛 명칭인 ‘한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성’은 남한의 도시로 잘못 수록되어 있다. 또한 중국에서 거주하는 한민족을 일컫는 ‘조선족’과 그들의 대표 거주지인 ‘장백조선족자치구’와 ‘연변’이 중국민족표(七)와 중국지리표(三)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역사(사건)	抗倭援朝战争, 壬辰卫国战争(1592-1598), 甲申政变(1884), 朝鮮甲午农民战争 (1894-1895), 三一运动(1919), 朝鮮战争(1950-1953)
역사(개념어)	间岛问题, 渤海(古族名), 渤海国, 实学派, 朝鮮独立同盟, 民族历史\朝鮮, 民族志\朝鮮, 地方史\朝鮮, 地方志\朝鮮, 朝鮮人
지리	朝鮮, 朝鮮半島, 韩国, 大丘, 釜山, 公州, 汉城, 庆州, 仁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平壤, 新义州, 元山, 开城, 朝鮮族, 长白朝鮮族自治县, 延边, 朝鮮海峽, 图们江, 鴨綠江, 长白山, 《漂海录》

한국과 관련된 고유 지리명은 ‘대한해협’,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등 4개로, 각각 ‘朝鮮海峽’과 ‘圖們江’, ‘鴨綠江’, ‘長白山’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중 ‘朝鮮海峽’은 해양학의 분류 항목인 ‘P722.3 日本海’에 대응된 기타 주제어들 중 하나로서, ‘對馬海峽(쓰시마해협)’, ‘沖繩海槽(오키나와 해조)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또한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은 모두 중국자연지리에 대응되어 중국식 표형으로 수록되어 있다.

3. NDLSH와 CCT의 한국 관련 주제명의 비교 분석

① 주제명의 수와 범위

NDLSH와 CCT에 수록된 한국 관련 주제명은 각각 258개와 137개로, NDLSH에 수록된 주제명이 2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단순히 집계된 수치만을 보고 평가하기에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첫째, 참조어의 수 문제로, NDLSH에 수록된 한국 관련 주제명은 표목수(114개)보다 참조어(144개)의 수가 더 많다. 이것은 LCSH와 BSH에 해당 주제명에 대응되는 용어가 존재하면 이를 참조어로 기술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시소러스 방식을 채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CCT는 표목과 참조어를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참조어의 수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참조어를 제외한 순수 독립 주제명은 CCT에 수록된 수(125개)가 NDLSH에 수록된 수(114개)보다 더 많다.

둘째, 인명, 단체명, 세목 결합 주제명의 문제이다. 인명의 경우 검색 누락의 우려와 형평성의 문제로 인하여 NDLSH와 CCT 모두 집계에서 제외시켰으며, 특히 NDLSH는 다양한 종류의 세목 결합 주제명과 단체명까지 제외시켰다. 이를 감안한다면 활용되는 한국 관련 주제명은 NDLSH가 훨씬 많은 편이다. 실제 Web NDL Authorities에서 '朝鮮'이란 용어로 검색하면 '北朝鮮研究學會', '大韓民國--商業', '医療制度--大韓民國'과 같은 단체명 및 세목 결합 주제명을 포함하여 전체 1888건의 결과가 나온다.

② 주제별 현황

NDLSH와 CCT에 수록된 한국 관련 주제명의 주제별 현황을 살펴보면, 양 쪽 모두 역사분야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과학 분야로, 두 분야의 주제명을 합치면 NDLSH는 68.6%이고 CCT는 80.3%이다. 나머지 주제의 경우 NDLSH는 모든 주제 분야에 고루 수록되어 있는 반면에, CCT는 종교 분야 주제명은 수록되어 있지 않고 기술과학과 예술은 1개에 불과하며 언어와 문학도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

한편 사회과학 분야를 살펴보면, NDLSH는 정치, 외교,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 관련 주제명을 수록하고 있지만, CCT는 정치, 외교, 군사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한 국가의 문헌정보의 표준이 되는 주제명표목표에는 그 나라의 정치적 지향점이나 문화적 특성, 그리고 역사관 및 세계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의 CCT가 정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한국식 명칭	NDLSH 수록 명칭	CCT 수록 명칭
사회과학	남북문제	朝鮮問題	朝鮮問題
	김대중납치사건	金大中拉致事件(1973)	金大中事件
	한일기본조약	日韓基本條約	日韓基本關係條約(1965)
예술	태권도	テコンドー	跆拳道
언어	한글	ハングル	諺文
	한국어	朝鮮語	朝鮮語
역사	임진왜란	文祿·慶長の役 (1592-1593, 1597-1598)	抗倭援朝战争, 壬辰卫国战争(1592-1598)
	갑신정변, 임오군란	京城事變(1882, 1884)	甲申政變(1884)
	동학혁명	東學黨の亂(1894)	朝鮮甲午農民戰爭(1894-1895)
	삼일운동	三·一獨立運動(1919)	三一運動(1919)
	한국전쟁	朝鮮戰爭(1950-1953)	抗美援朝战争, 美国侵略战争, 朝鮮戰爭(1950-1953)
	양반	兩班	兩班(朝鮮)
	한국인	朝鮮人	朝鮮人

NDLSH와 CCT의 개발 당사국인 일본과 중국이 자국의 입장과 관점을 반영한 사례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중·일 삼국이 모두 관련된 임진왜란의 경우, NDLSH는 문록과 경장 시대의 전쟁이라는 의미의 ‘문록·경장의 역’으로, CCT는 왜구에 대항하여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는 의미의 ‘항왜원조전쟁’과 ‘임진위국전쟁’으로 표기하는 등 자국내의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 전쟁에 대한 CCT의 ‘항미원조전쟁’이나 ‘미국침조전쟁’도 같은 맥락의 설정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위의 두 사례를 포함하여 NDLSH와 CCT에 공통으로 수록된 주제명은 13개 종류로, 역사 분야의 주제명이 가장 많다.

③ 국가명칭

NDLSH에 설정된 한국의 국가 명칭은 ‘朝鮮’, ‘大韓民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등 3개로, ‘朝鮮’은 분단 이전의 한국에 사용되는 표목이다. 남북한의 정식 명칭인 ‘大韓民國’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2011년 11월에 변경되었는데, 이전에는 ‘朝鮮(1948- 大韓民國)’과 ‘朝鮮(1948- 民主主義人民共和國)’처럼 과거의 국명인 ‘朝鮮’에 한정으로 부기된 형태였다. 국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명을 세목으로 사용하는 지명세목(예: ‘映畫--大韓民國’)이나 국가명을 주제명으로 세목이 결합되는 지명결합세목(예: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紀行’)의 명칭도 모두 변경되었다. 한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LCSH에서 채택된 표목인 ‘Korea(South)’와 ‘Korea(North)’를 포함하여 여러 개의 참조어를 설정하고 있다.

大韓民國

UF: 韓國 ; Korea(South) ; 朝鮮(1948- 大韓民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UF: 朝鮮(1948- 民主主義人民共和國) ; 朝鮮(北) ; Korea(North) ; 北朝鮮

CCT에는 보조표 중 하나인 세계지리표에 한국에 대한 국가명칭이 수록되어 있으며 ‘朝鮮’, ‘韓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등 3개이다. 하지만 NDLSH와 같이 각각의 주제명에 대한 사용상의 주기가 없어 정확한 사용기준을 알 수가 없다. 또한, 통상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총칭하여 ‘朝鮮’으로 표기하고 남한은 ‘韓國’, 북한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따른다. 즉, 국가명을 부기하여 주제어군을 만들거나 주제명에 대한 설명(주석) 등 CCT 전반에 걸쳐 ‘朝鮮’이란 명칭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韓國’이란 명칭은 한국의 현대사에 대한 시대구분 조합과 외교 분야의 극히 일부 주제명에서만 사용될 뿐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CCT의 사회주의적, 친북한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시대구분

NDLSH와 CCT에 수록된 한국의 시대구분은 각각 아래와 같이 전개되어 있다. 주제명의 구성 방법과 세분의 수준을 살펴보면, NDLSH의 경우 '朝鮮'에 주제명 '歷史'와 시대세목이 첨부된 형태이며, 14개의 표목과 35개의 참조어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CCT는 상고-고대-중세-근대와 같이 세계사적 시대명에 국가명인 '朝鮮'을 조합하거나, 왕조명이나 해당연대를 이용하여 추가 조합이 이루어진 형태로, 전체 21개의 주제어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NDLSH	CCT
朝鮮--歷史--古代	历史\朝鮮
朝鮮--歷史--古朝鮮時代	上古史\朝鮮
朝鮮--歷史--湍浪郡時代	古代史\朝鮮
朝鮮--歷史--三國時代	中世紀史\朝鮮
朝鮮--歷史--高句麗	中世紀史\朝鮮\三國時代(朝鮮)
朝鮮--歷史--百濟	中世紀史\朝鮮\新羅(675-918)
朝鮮--歷史--新羅	中世紀史\朝鮮\高麗(918-1392)
朝鮮--歷史--加羅諸國	中世紀史\朝鮮\李朝(1392-1910)
朝鮮--歷史--高麗時代	近代史\朝鮮
朝鮮--歷史--李朝時代	近代史\朝鮮\1876-1910
朝鮮--歷史--19世紀	近代史\朝鮮\1910-1945
朝鮮--歷史--日本統治時代	抗日斗争\朝鮮\1932-1945
朝鮮--歷史--1945-	近代史\朝鮮\1945-
渤海	現代史\朝鮮
	現代史\朝鮮\1945-1950
	現代史\朝鮮\1950-1953
	現代史\朝鮮\1953-
	历史\韩国\1945-
	历史\韩国\1948-1961
	历史\韩国\1950-1953
	历史\韩国\1953-

NDLSH의 시대구분상의 특성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부여, 옥저, 동예 등 우리의 고대국가명은 참조어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으며, 별도의 시대세분으로 전개되어야 할 삼한시대는 삼국시대와 동일시대로 설정되어 있다. 게다가 '朝鮮--歷史--1945-'을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시대전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공식 국가명칭 '大韓民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시대구분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참조어의 순서에도 변화가 보이는데, 고려, 조선 등은 왕조명을, 일제강점기시기와 1945년 이후 시대는 LCSH상의 영문명을 선행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CCT는 현대사를 남북으로 구분하여 전개한 점이 대표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대사\조선', '중세기사\조선', '근대사\조선' 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현대사 관련 주제명은

남한의 '歴史\韓國\1945-'이 아닌 북한의 '現代史\朝鮮'으로, 이는 민족 정통성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술한 국가명칭을 사용하여 북한의 현대사는 '現代史\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으로, 남한의 현대사는 '現代史\韓國'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외에도 CCT에는 역사구분 주제어군과 함께 왕조명을 함께 수록하고 있으나, 고조선, 백제, 마한, 진한, 변한 등 역대 왕조명이 상당수 누락되어 있다.

⑤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명

NDLSH와 CCT에서 수록되고 있는 한국 관련 주제명 중 한·일, 한·중 간에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명에 대한 수록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도와 동해 관련 표기이다. 분쟁 당사국인 일본의 경우, PDF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는 NDLSH에서는 독도를 외교문제의 일환인 '竹島問題'로 표기하고 있으며, 동해에 대해서는 '日本海海戰(1905)' 및 '日本海中部地震(1983)'과 같은 방식으로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게다가 인명, 단체명, 지역명 등 고유명까지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Web NDL Authorities에서는 지명으로 '竹島'와 '日本海'를 수록하고 있으며, 한국식 표기는 참조어로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NDLSH 전체에서 독도와 동해 관련 한국식 표기는 '竹島問題'의 참조어로 설정된 '獨島問題' 하나 뿐이다. 한편 CCT에서 독도 관련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동해는 '日本海'로 수록하고 있어 일본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둘째,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등의 표기 문제이다. 먼저 분쟁 당사국인 중국의 CCT에는 '圖們江(도문강-두만강의 중국식 표현)', '鴨綠江(영문명 Yalu River는 중국식 표현)', '長白山(장백산-백두산의 중국식 표현)' 등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모두 중국의 지리에 포함시키고 있다. Web NDL Authorities 경우 두만강에 대한 주제명은 없고 백두산은 '白頭山'으로 표기되고 있다.

셋째, 발해 관련 표기로, NDLSH와 CCT 모두 중국 역사의 일부로 수록하고 있다. 발해에 대한 역사 왜곡의 당사국인 중국은 CCT에서 '渤海(古族名)'와 '渤海國'으로 표기하고 이를 중국의 고대 민족 및 고대 국가로 수록하고 있다. NDLSH의 경우에도 '渤海'로 표목을 설정하고 있지만, NDC(신정 9판)내에서 중국역사로 전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中國--歷史--渤海'를 참조어로 두는 등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IV. 결론

NDLSH 2008년판과 CCT 제2판에 수록된 한국 관련 주제명의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DLSH와 CCT에 수록된 한국 관련 주제명은 NDLSH의 주제명이 2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시소러스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용한 NDLSH가 표목수보다 참조어수가 많은 점, 그리고 CCT Web판에 수록된 인명과 Web NDL Authorities에 수록된 세목 결합 주제명, 인명, 단체명을 집계에서 제외시킨 점 등을 고려한다면 참조어를 제외한 순수 독립 주제명은 CCT가 많고 실제 활용되는 한국 관련 주제명은 NDLSH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둘째, NDLSH와 CCT는 주제명표목표를 개발한 양국의 정치 문화적 환경과 역사 및 세계관이 반영된 까닭에 중국의 CCT는 사회주의적, 친북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국가의 표기순서를 보면 북한은 '朝蘇', '朝日'로 선행시킨 반면에 한국은 '日韓', '美韓'으로 후행시킴으로써 북한식 표기를 따른 점, 한국전쟁에 대해 '조선조국해방전쟁'이나 '침조전쟁'과 같은 북한의 시각을 담은 주제명을 참조어로 설정하고 있는 점, 또한 예술, 언어, 문학 분야보다 정치, 외교, 군사 분야의 주제명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록한 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한국의 국가명에 대해서 NDLSH는 '조선',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CCT는 '조선', '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NDLSH는 대표 국가 명칭으로 '조선'을 계속 사용하다가 최근에서야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반면에 CCT는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여 여전히 '조선'이란 명칭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조선'과 '한국'의 구분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

넷째, 한·일, 한·중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명 표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었다. 즉, NDLSH는 '독도'와 '동해'에 대하여 CCT는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에 대하여 자국의 인식과 관점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기재하고 있다. 특히 '발해'와 관련해서는 양 표목표 모두 중국 역사의 일부로 설정하고 있어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배정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NDLSH와 CCT에 수록된 한국 관련 주제명은 한국의 입장에서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것은 한국이 중국 및 일본과 역사적 곡절과 다양한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국가의 문헌정보의 표준이 되는 주제명표목표라면 국가 간에 논란이 되거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명의 경우 양자의 입장을 대등하게 수용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NDLSH와 CCT에 보다 다양하고 한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주제명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한국 관련 자료의 외국어 출판을 장려하고 국가적인 수준에서 자료 기증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향후 한국 관련 주제명의 변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주요 6개국 국립도서관 한국관련 주제어 자료집.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0.
- 김영귀. “LC Subject Headings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의 선정 및 표기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대학편), 제44집(1997), pp.237-272.
- 김정현.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10), pp.147-169.
- 김정현.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 비교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28권, 제3호(2011), pp.141-162.
- 문지현, 김정현. “『國立國會圖書館件名標目表』의 한·중 관련 주제명표목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11), pp.247-267.
- 문지현, 김정현. “『中國分類主題詞表』의 한·일 관련 주제명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pp.331-350.
- 윤정옥.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의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표목의 비교 연구.” 도서관, 제56권, 제1호(2001), pp.30-55.
- 최석두. “『中國分類主題詞表』의 형식과 구조.”國會圖書館報, Vol.39, No.6(2002), pp.29-48.
- Kim, Joy.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 Related to Korea and East Asia in General*. [Unknown]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1980.
- 永森 光晴, 杉本 重雄. “國會圖書館件名標目表(NDLSH)의SKOS化とそのグラフィカルブラウザの作成.” デジタル図書館, Vol.31(2006), pp.13-21.
- 村上幸二, “BSH(基本件名標目表)とNDLSH(國立國會圖書館件名標目表)의計量的比較分析.” 紀要 40(2009), pp.135-147.
- 國立國會圖書館. 國立國會圖書館件名標目表2008年度版.
<http://www.ndl.go.jp/jp/library/data/ndl_ndlsh.html>. [인용 2012. 8. 15].
- 中國分類主題詞表Web版. <<http://cct.nlc.gov.cn/login.aspx>> [인용 2012. 8. 15].
- 中國圖書館《中國圖書館分類法》編輯委員會 編. 中國分類主題詞表. 第二版. 北京 : 北京圖書館出版社, 2005.
- Web NDL. Authorities 國立國會圖書館典據データ檢索·提供サービス.
<<http://id.ndl.go.jp/auth/ndlsh>> [인용 2012. 8. 10].

